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5> 무진거사 장상영(하)

유생일 때의 '무불론(無佛論)'을 짓고자 할 만큼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무진 거사는 불법을 만난 이후 그 마음 씀씀이는 시원하게 특 트였다. 더욱이 불교와 유교뿐만 아니라 도교까지도 평등하게 대하려고 애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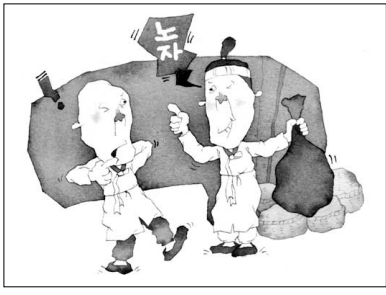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배려했다. 거사로서 그리고 관료로서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해 흉년이 크게 들었다. 도교(道敎)의 도사(道士)들까지 그가 불자인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넉넉한 그의 집을 찾아와 양식을 보시해 주도록 부탁했다. 무진거사는 대뜸 그들에게 <금강경> 외울 것을 주문했다.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도 <금강경>을 외워야만 했다. 일부분만 외는 자에게는 쌀 한 말을 주고 전체를 외은 자에게는 석 섬 두 말의 쌀을 시주했다. 만약 여기까지라

무진거사는 대 문장(大文장)이라 글 보기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결코 그냥 써주는 법이 없었다. 글을 주면서도 꼭 공부무게를 달아보고 써주었다. 담당문준(1061~1115) 선사가 입적하자 탐명(塔銘)을 무진거사에게 부탁하였다. 선사가 입적하고 난 뒤 다비를 하였는데 눈동자와 치아 몇 개는 그대로 있었다. 사리가 무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여 후학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심부름을 온 남자는 그 회상에 온지 2년밖에 안 된 24살의 젊은이였다. 그래도 심부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초심자라고 봐줄 수는 없는 일이다. 선지(禪指)에 무슨 세람과 법랍이 필요한가. 물론 그를 통해 그 집안의 솜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대답을 하면 탐명을 지어드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돈 5관을 어찌로 드리겠으니 발길을 돌려 다시 도술사로 가서 참선이 나더 하십시오.”



보시 청하는 도사에겐 '금강경' 외우라 주문 스님에겐 '노자' 읽도록 권유... 서로 알게 유도

면 그 역시 아직까지도 또 다른 편협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염불보다는 깃발으로 승부했다'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 시주조건으로 <금강경>을 읽도록 한 것은 반야와의 인연을 맺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후인들은 무진거사가 재물시주와 법시주 두 가지를 했다고 평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흉년이 들었으니 스님들 역시 보시를 청해왔다. 평소에는 법의 위력이 대단하지만 흉년에는 법의 위력도 그 못지않다. 이후 출가자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노자>를 읽도록 권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게 했다. 흉년이라는 시절인연을 이용해 불교는 도교를, 도교는 불교를 이해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남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가르침이지만 서로 알게 되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중국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고 하는 그의 깊은 마음 씀씀이를 볼 수 있다.

“네! 물으시오.”
“들자니 문준 노스님의 눈동자가 부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 눈동자가 아니요.”
“상공은 어떤 눈동자를 물었습니까?”
“금강(金剛)의 눈동자를 물었소.”
“금강의 눈동자야 상공의 붓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늙은이가 그를 위해 광명을 찍어내 그것으로 천지를 비추려는 애기군요.”
그 젊은 남자는 뜨락으로 내려서며 말했다.
“스승께서는 잠으로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상공의 탐명에 감사드립니다.”
무진거사는 허락하면서 웃었다.
<유마경>과의 인연으로 조사의 도를 만났고 글 보시와 식량을 시주하면서도 늘 빠지지 않는 법에 대한 열정으로 송대(宋代) 불교를 빛낸 거사라고 하겠다.

■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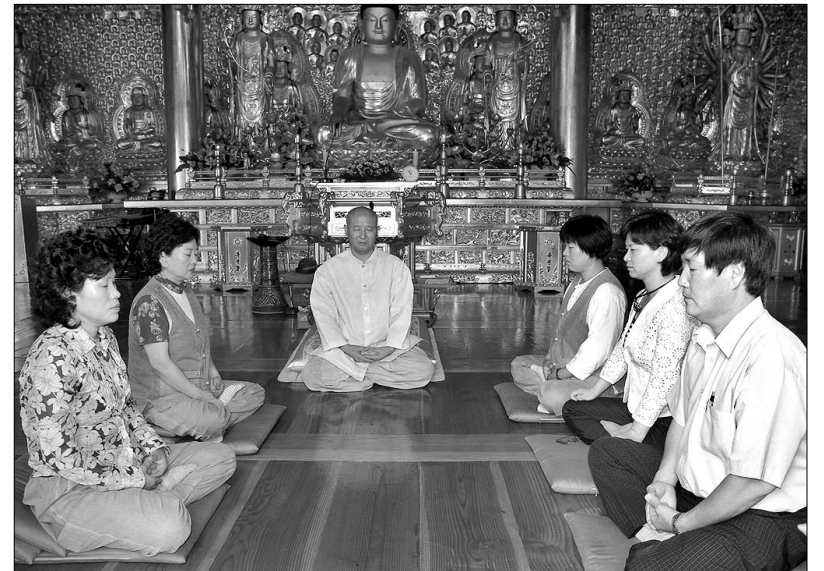
목적 불분명하면 기복에 빠질수도

'염불 응용 수행' 문제점은 없다

염불선, 염불정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고, 2004년에는 염불위빠사나(가)국 내에 소개됐다. 염불은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으로, 다른 수행법보다 접근하기 쉬워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여기에 조사선·절수행·위빠사나(가)접목된 것이 바로 염불선이고 염불정이고 염불위빠사나다.

하지만 염불을 응용한 이런 수행법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수행자의 근기와 수행효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장점이 많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유사불교수행법을 양산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염불 응용 수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을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종합해본다.



염불응용 수행의 장·단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청원 해운사 주지 덕산 스님과 신도들이 염불선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점점 있지만 신중해야

염불 응용 수행법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은 시대에 맞게 발전이 되고, 또 이들 수행으로 효과를 본다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수행 목적이나 형태와 과정 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종합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검토,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염불선을 지도하고 있는 청원 해운사 주지 덕산 스님과 염불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는 김열권 법사, 그리고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은 선과 염불과 절이 대표적인 불교의 수행법이고 위빠사나 역시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만큼 이들이 혼합된 수행 형태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이들 수행법이 근기에 맞는 수행을 목적으로 생겨났고, 실제로 수행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산 스님과 종호 스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법이 시대와 환경에 의해 나왔고, 그 시대의 삶과 정신세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행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응용 수행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원칙 같은 것이 있으며, 소수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행한다고 해서 정통수행법과 같은 수행법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염불 응용 수행의 경우 기복에 흐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이었다.

미산 스님은 “정견과 연기적 가르침에 입각한 이론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응용 수행법은 경계해야 하며, 기복화되고 있는 염불수행이나 불교의 정견을 반영하지 않은 불교유사수행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덕산 스님은 “염불선의 경우 기복으

로 흐르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며 수행목적과 과정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응용 수행법의 경우 ‘도달해야 할 목표’(깨달음인자, 안심인자, 조복인자 등의 궁극적 지향점)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어느 한 두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숙고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견·연기적 가르침에 바탕 수행 목적·과정 일치해야 염불의 근본 이해 못하면 독 중심 잃고 해매는 사례 많아

▶무분별한 수행법 혼용은 '위험'

수행법 혼용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소수에 국한된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수행법의 혼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 원명선원 선원장 대호 스님과 양산 정도원 원장 정목 스님은 선이나 염불이나 절이나 정통수행법이라는 하지만 이들 수행법을 혼합한 형태의 응용수행은 이론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쉽고, 수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염불 응용 수행법들이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염불수행의 장점과 선수행·절수행·위빠사나 수행의 장점들이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스님은 이와 함께 수행현장에서 불자들을 지도한 경험을 예로 들며 “염불선 등 응용수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해매는 불자들을 적지 않게 보았다”며 응용수행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대호 스님은 “참선을 지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화두를 일으켜 반복하는 ‘송화두’나 화두를 생각 속에서 계속해 오는 ‘염화두’ 수행을 참선과정에서 넣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화두를 의심하는 화두선 수행의 근본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염불수행의 응용형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염불수행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른 수행법과 혼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목 스님은 “간화선에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주로 염불선을 찾지만 염불의 근본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염불선과 염불위빠사나에 대해서도 “수단(수행형태)만 중요시한 채 근본(수행목적)을 무시하는 수행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행법 자체 보다는 수행자의 근기를 살펴면서 그 근기에 맞게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통수행법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너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밤은 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세는 본래는 인생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ntr.com E-mail: heegyun@avatar21.com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입종 공고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상에 맞추어 불법을 효과적으로 포교하고 미륵부처님의 큰뜻인 융화세계를 구현할 뜻있는 스님들을 위해 본 종단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입종을 바랍니다

- 자격 : 사미, 사미니계를 수계한 승려
- 지역 : 전국 (타종단에서 체탈도침된자 제외)
- 대우 :
 -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종단행정에 참여가능하며 각 지역별 교구원장으로 추천
 -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는 스님들에게 행정 지원(사회복지법인허가취득)
 - 타 종단에서 수계한 법계인정
 - 종단기구에 보직을 원하는 스님은 중앙종회 심사후 가능

한국불교미륵종 연혁

- 1987년 10월 창 종
- 2000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설립인가 (문화관광부 제229호)
- 2002년 5월 홈페이지개설 www.mireuk.org
- 2004년 2월 제3세 운허당 연화대중사 중장취임
- 2005년 12월 사회복지법인 미륵원 설립허가취득 (보건복지부)

행자 모집

한국불교미륵종은 불교의 선진화를 앞두고 불법포교와 종단행정의 발전을 위해 젊고 유능한 행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인원 : 00명
- 학력 : 고졸이상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학력소지자)
- 나이 : 40세이하
- 자격 : 부처님 제자로서의 바른 마음가짐과 신체건강한 남녀
- 특전
 - 6개월간 총무원 직할 사찰에서 승려 기본교육을 시행하며 합동수계식후 승려증발급
 - 수계후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수 있도록 주선

접수 및 문의처

한국불교미륵종 총본산 관음정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총무원 대표전화 055)345-4741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11번지
 전화 02)351-3679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윤송정